

대학문화 따라 대불련도 변화

㉔ 2000년대 - 인터넷 포교, 그리고 디지털 활동

2000년대 들어서 대불련의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문화에 대한 적응이다.

2000년대 재가불자들과 청년 불자들이 종단 내부나 사회 속에서 역량발휘에 한계를 느낀 것과 비례해 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활발히 전개된다.

특히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토론사이트 등을 통해 불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불련 또한 조직운동 자체가 인터넷을 배제하고서는 전개될 수 없을 정도로 2000년대 인터넷에 기반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대불련 홈페이지(www.ikbuf.org), 인터넷 방송국(www.ikbuf.net) 공식사이트가 구축됐고 2003-2005년 사이 불교학생회 홈페이지 개설 붐이 일며 대불련 부산지부, 대구경북지부 등 각 지역 홈페이지를 비롯해 충남대·성균관대·건국대·중앙대·한양대 등에서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 형식을 비롯한 다양한 홈페이지가 선보였다.

직장을 비롯해 가정, 현장에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점은 커뮤니티의 강화를 의미했다. 이는 대불련 활동이 대불련의 틀을 벗어나 불교연합운동으로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1980년대 이후 불교연합운동은 대불련을 기반으로 해 전개됐으며 때로는 불교연합운동에 대불련이 지도를 받는 관계로 진행되

온라인 문화로 오프라인 위축
조직력 약화는 시대 흐름
멘토링·리더십 함양 교육 필요
언어가는 활동으로 중흥 도모

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동기운동과 재가연대의 틀에서 시작된 연대운동은 대불련 사회활동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며 불교환경연대, 불교인권위, 여성단체 등과도 활발한 연대활동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 활동은 대불련이 중심이 아니었으며 대불련 역시 불교연대운동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대불련은 2000년대부터 한국종교대학생 연대를 구성하고 이웃종교 이해와 연대라는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런 점은 대학 사회의 변화로 인해 대불련의 활동이 불교계와 종단, 사회에 맞춰진 데서 대학 단위로 축소된 것을 의미했다.

현재 대불련에 등록된 지회는 144곳. 하지만 활동을 하는 곳은 절반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 많은 학생회는 회원이 10명 미만이라 언제 문을 닫을지 위태로운 상황이다. 불교학생회에서 각 대학 불교학생회 신입회원의 숫자는 한손으로 꼽을 정도로 처했다.



2011년 충주 석종사에서 진행된 KBUF 템플스테이

입학과 동시에 시작되는 취업 준비, 개인주의의 만연, 또 거기에 더해 인터넷 동호회의 활성화로 대학 내 동아리들이 역으로 위축된 것이다. 특히 취업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아리들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경제적 이득이나 말초적인 재미와는 거리가 먼 불교학생회는 명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실정이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대학생 포교를 위해 조계종 차원의 전문 포교조직이 출범한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2010년 각 대학별 지도법사를 맡을 15명의 스님들을 포함해 대학생 전법단을 위촉했다. 포교원은 별도로 산과 함께 대불련과 연계활동으로 취약포교 분야인 대학생 포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대불련은 학생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지닌 만큼 대불련이 다시금 한국불교 청년불자들의 대표이자 미래불자의 양성소로 자리 잡

기 위해서는 특성 주제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선배, 법사, 스님, 종단 차원의 이력이 필수적이다. 대불련이 새 시대에 다시금 활발한 젊은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은 "세대의 변화로 인해 대불련 활동에 참석할 이들이 '감동과 위로', 또는 '정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언어가는 활동이 돼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불련 활동만의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회 지부간 네트워크 회복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대학생 문화가 이미 변화했습니다. 선후배 관계를 비롯해 조직문화 자체가 변한 만큼 대불련 회원들이 서로 어떤 것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SNS 등 도입 조직 정비할 터”

최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50대 회장

“열정과 패기를 갖춘 불교계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50대 회장은 대불련 위상 강화를 위해 회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불련 활동을 하기 위해 휴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상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 임원진 임기는 1년이다. 취임경쟁이 치열한 요즘 시대에 불교활동을 위해 1년이란 시간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불범홍포에 뜻을 세운 최 회장에게는 한양대 화학공학과 3학년을 휴학한 이 시간은 대불련 활동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난 최경환 회장은 군 복무 중 불교에 대한 마음이 공고해졌다. 전역 후 한양대 불교학원에 가입해 대불련 활동을 시작했지만 대불련 연회단과 제1회 '영부디스트 캠프 (Young Buddhist Camp)' 준비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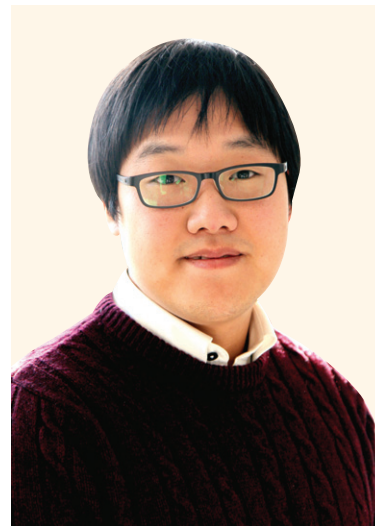
최경환 회장은 최근 들어 침체된 대불련 활동에 대해 “과거 지식인으로 대접받았던 대학생들과 달리 대학생들은 스스로 사회 약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불련을 비롯한 학생조직 위상이 예전보다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역사가 오래된 조직이지만 대학문화의 변화로 선후배간 연계가 원만치 않다. 또 사무실 이전을 6차례 겪으며 중앙조직 또한 각 지부·지회를 총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불련의 2013년 50주년을 맞아 희망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최 회장은 “대불련이 한국 불교계를 발전적으로 이끌 많은 리더들을 배출하는 단체로 다시금 자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종단과 교수님들을 비롯한 불교 각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회장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포교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



불교지도자양성 요람으로
조직 강화의 원년 삼아
50주년 맞아 힘찬 도약
대학생 눈높이 맞춘 활동

양한 매체를 이용한 신입생 모집, 조직 활동 등을 펼 것을 밝혔다.

최 회장은 “사회문제에 있어 불교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열린 공간에서 토론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대불련이 담당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최 회장은 대불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 리더가 될 수 있는 멘토링과 불자 리더십 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불련이 한국 불교계를 발전적으로 이끌 많은 리더들을 배출하는 단체로 다시금 자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종단과 교수님들을 비롯한 불교 각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2011년 교창 선운사에서 진행된 Young Buddhist Camp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헤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